

우리가 선택한 삶 “성령의 열매” 1

“성령이 인도하는 삶”



마음열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 짜장면 vs 짬뽕
- 김치찌개 vs 된장찌개
- 비빔냉면 vs 물냉면
- 양념치킨 vs 후라이드치킨
- 해물파전 vs 김치전
- 콜라 vs 사이다
- 곰탕 vs 삼계탕
- 탕수육 vs 깐풍기
- 초코우유 vs 딸기우유
- 족발 vs 보쌈
- 양념게장 vs 간장게장
- 초코파이 vs 오예스
- 고기 vs 회
- 돈 vs 명예
- 엄마 vs 아빠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당신이 삶에서 잘 못된 선택으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갈라디아서 2:20

20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16-26

16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17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18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19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20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 가르기와 분열과

21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23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24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26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만나고 난 후의 내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 **갈라디아서 2:20은 예수를 믿는 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갈라디아서 2:20)**

📖 **갈라디아서 5:16-17절은 두 가지 뚜렷한 대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 갈라디아서 5:19-21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 갈라디아서 5:22-23절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할 삶의 특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중, 나의 삶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성품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성품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현재 나의 결정과 행동을 이끄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요? (예: 욕심, 두려움, 편안함, 성령의 인도)

📖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주기 위해, 이번 주에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인가요?



적용과 결단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때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9가지의 열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삶 속에서 위와 같은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와 같은 성품을 우리의 삶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

스럽게 위와 같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께 당신의 주도권을 내어주기 위해 당신이 노력하고 결단할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